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 이 주 미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분석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수료

논문투고일 : 2023.07.28

논문심사일 : 2023.08.10

게재확정일 : 2023.08.26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A stud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Lee, Ju-mi · Dankook University

_____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explore the medi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the Naver Office survey program, and a total of 383 responses were collected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two weeks, from May 15th to 31st,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statistical program, conduct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ub-dimensions of resilience, specifically control, and sociabilit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sub-dimension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cluding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and tool preparation behavior. Moreover, sociability showed a positive effect on goal-achievement behavior. The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goal sele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sociability, and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ool preparation behavior and goal-achievement behavior. Moreover, occupational inform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and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as well as between sociality and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Furthermore, occupational inform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and tool preparation behavior, as well as between control and goal-achievement behavior. Finally, problem-solving was identified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rol,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tool preparation behavior, and goal achievement behavior, as well as between sociability and information-gathering behavior and goal-achievement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resilience and propose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enh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confidence) among students, promoting smoother interactions between professors, experts, and students.

<key words> resili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llege dance major, dance

<주요어> 자아탄력성,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 무용, 무용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오던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 장벽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주(2021)에 의해 특히 예체능 분야의 무용 전공 학생들 취업의 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공립 예술 단체는 국립예술 단체 5곳, 도립 무용단 3곳, 시립무용단 13곳으로 총 21곳이다. 무용단 개수에 비해 무용 전공자의 수가 많고 무용단 내 장기 근로 무용수들이 근속하는 등의 이유로 입단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국공립 예술 단체 외에 민간단체와 동문단체(동문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무용단)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경우 측정된 연봉이 없으며, 대부분 재단에서 지원 받은 지원금 내에서 공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윤아(2023)는 국공립 예술 단체 내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수들을 제외한 프리랜서 무용수들은 공연예술계에서 활동하기에 고용 사정 및 근로계약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공연예술계의 현실이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무용 전공 대학생 졸업 후 취업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개인적 예술 작업, 무용수의 역할, 교육자, 안무가 등의 다양한 역할을 겸업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무용 관련 및 인근 직종인 무대 관련 조명, 무대 디자인 등으로 진로 준비를 하는 양상이 눈에 띄며, 최근에서는 사회무용 분야에 대한 서비스업인 인력(재즈, 필라테스, 요가, 댄스스포츠 등)과 공연 관련 전문인(무용 경영, 기획, 마케팅, 의상, 분장, 뮤지컬 안무 및 앙상블 등)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이지혜, 2017:1-2). 즉, 이정은(2006)은 취업 장벽의 가혹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상황과 이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취업의 난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학생들은 희망 진로를 전환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취업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아(2023)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재단법인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에서는 무용수들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직업전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 관련 직종에서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더불어 (김지연, 이기학, 2014; 김형균, 2003; 임보미, 2020; 홍지현, 2013) 등 많은 전문가가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다고 발표하고 있기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기순(2016)은 국내에서 김봉환(1997)에 의해 진로준비행동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태어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숙명이며, 생애 동안 경험하고 거쳐야 하는 모든 체험의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무용 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김규진, 2021), 전공 만족(이화석, 2019), 진로 장벽(이태원, 2023) 등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좀처럼 호전되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타 분야(김지연, 이기학, 2014; 신미경, 김희수, 2017; 이명숙, 2017; 이진선, 2015)에서는 자아탄력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용일(2013)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또는 관념을 뜻하는 '자아'와 물체 또는 어떠한 것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통겨지는 힘이 있는 성질을 뜻하였고, 황혜지(2017)는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le)'과 같이 변하지 않는 불변인 고정적 특성이 아닌 대처 과정의 변화무쌍한 외부의 힘으로 영향을 받거나, 통겨지는 역동적 본질인 '탄력성'을 합친 단어로 개인의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탄력성에 자아 통제라는 개념을 접목한 것이라 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시와 콩쿠르 참여, 공연 출연 기회 습득,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상처에 익숙한 무용 전공자들에게 자아탄력성을 꼭 필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추가로 진로 관련하여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박효식, 2019; 이혜민, 2017; 염태영, 2017)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홍지현(2013)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자신의 역량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라 하였으며, 즉 이는 어떠한 특정 행동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체의 신념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최근 연구(김민범, 2023; 김정수, 2017; 김지연, 이기학, 2014; 천혜선, 2019; 편유희, 2015)를 보면 타 분야에서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활용하

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도 대입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매개효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학술적,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통제성, 긍정성, 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해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더욱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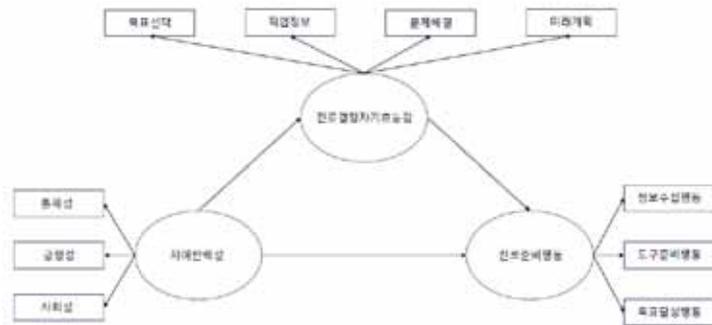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 383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2명, 여성 331명, 학년은 1학년 107명, 2학년 106명, 3학년 94명, 4학년 76명, 전공은 한국무용 87명, 현대무용 203명, 발레 93명으로 나타났고 경력은 1년 미만 8명, 1~2년 26명, 3~5년 115명, 6년 이상 234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347명, 비수도권 36명, 부모와 동거 여부는 부모 모두와 동거 135명, 부 또는 모와 동거 17명, 자취 23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수준은 상 60명, 중 286명, 하 37명으로 나타났다.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52	13.6
	여	331	86.4
학년	1학년	107	27.9
	2학년	106	27.7
	3학년	94	24.5
	4학년	76	19.8
전공	한국무용	87	22.7
	현대무용	203	53.0
	발레	93	24.3
경력	1년 미만	8	2.1
	1~2년	26	6.8
	3~5년	115	30.0
	6년 이상	234	61.1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347	90.6
	비수도권	36	9.4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모두와 동거	135	35.2
	부 또는 모와 동거	17	4.4
	자취	231	60.3
경제 수준	상	60	15.7
	중	286	74.7
	하	37	9.7
합계		383	100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였다. 구성요소 인구통계 7문항, 자아탄력성 27문항, 진로준비행동 18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문항 총 77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활용

하여 5점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요소는 <표 2>, 대표 문항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요소 및 문항수

구성	하위변인	문항수
인구통계	성별, 학년, 전공계열, 무용경력, 소재지, 부모와 동거여부, 경제수준	7
자아탄력성	통제성	9
	긍정성	9
	사회성	9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행동	6
	도구준비행동	5
	목표달성행동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선택	11
	직업정보	6
	문제해결	3
	총계	5
총계		77

표 3. 설문지의 구성요소별 대표문항

구성	대표 문항
자아탄력성	통제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시에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긍정성 열심히 임하면 언제나 그에 타당한 보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성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대상은 대체로 나를 좋아하게 된다.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행동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도구준비행동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성격 및 적성, 흥미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쿡쿠르(대회) 또는 자기 능력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다.
	목표달성행동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 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나는 나에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알 수 있다.
	직업정보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문제해결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
	미래계획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다.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신우열, 김주환, 김민규가 2009년 한국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YKRQ-27)를 사

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맞게 박소희(2021)가 사용한 설문지를 전문가(대학교수 1인, 무용학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는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관계성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긍정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10, 12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숙(2003)의 2가지 문항을 김봉환(1997)이 진로준비행동 검사로 개발한 척도 16문항에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박소희(2021)가 사용한 진로준비행동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문가(대학교수 1인, 무용학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행동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척도검사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CDMSES-SF)를 타당화 시킨 이은경(2001)의 척도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천혜선(2019)이 사용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전문가(대학교수 1인, 무용학박사 1인)와 함께 수정·보완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목적에 대해 연구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뒤,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으며, 온라인은 네이버 오피스 설문프로그램인 오피스폼을 활용하였고 오프라인은 각 대학에 전공별 조교 및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출강강사를 통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총 383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직각 회전방식(베리맥스)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Cronbach의 알파)을 실시하였다. 이후 변수계산을 거쳐 다중회귀분석과 Baron, R. M.&Kenny, D. A.(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5.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공통성 (.5 이하)이 낮고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묶이지 않는 통제성 2, 6, 7, 8, 9번 문항, 긍정성 1, 5, 6, 7, 8, 9번 문항, 사회성 1, 2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시행한 결과 공통성 .504~.725, 적재치 .550~.835, 신뢰도 계수 .753~.865로 나타나 통계적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다음〈표 4〉과 같다.

표 4. 자아탄력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 0.869)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통제성1	.612	.762	5.513	39.378	39.378	.753
통제성3	.621	.772				
통제성4	.605	.775				
통제성5	.504	.607				
긍정성2	.556	.709	1.773	12.665	52.044	.768
긍정성3	.725	.835				
긍정성4	.706	.784				
사회성3	.542	.550	1.201	8.557	60.621	.865
사회성4	.559	.731				
사회성5	.645	.766				
사회성6	.655	.776				
사회성7	.621	.663				
사회성8	.577	.692				
사회성9	.557	.613				

다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은 공통성(.5 이하)과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묶이지 않는 정보수집행동 3번, 도구준비행동 3번, 목표달성행동 1, 2, 7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시행한 결과 공통성 .514~.731, 적재치 .449~.807, 신뢰도 계수 .767~.829로 나타나 통계적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다음〈표 5〉과 같다.

표 5. 진로준비행동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 0.888)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정보수집행동1	.520	.551	5.645	43.424	43.424	.795
정보수집행동2	.540	.696				
정보수집행동4	.731	.807				
정보수집행동5	.727	.679				
정보수집행동6	.647	.454				

도구준비행동1	.600	.700	1,294	9,955	53,379	.829
도구준비행동2	.656	.753				
도구준비행동4	.609	.751				
도구준비행동5	.637	.760				
목표달성행동3	.709	.771	1,264	9,725	63,105	.767
목표달성행동4	.714	.790				
목표달성행동5	.599	.702				
목표달성행동6	.514	.449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공통성(.05 이하)과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묶이지 않는 목표선택 1, 3, 11번, 직업정보 1번을 삭제하였고 미래계획은 통으로 제거하였다. 문제해결은 삭제된 항목이 없었다. 이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재시행하여 공통성 .521~.823, 적재치 .581~.899, 신뢰도 계수 .756~.90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다음<표 6>과 같다.

표 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분석 및 신뢰도(KMO: 0.925)

요인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	누적 %	신뢰도
목표선택2	.556	.712	7,220	45.125	45.125	45.125
목표선택4	.521	.685				
목표선택5	.647	.759				
목표선택6	.604	.740				
목표선택7	.648	.767				
목표선택8	.558	.713				
목표선택9	.669	.787				
목표선택10	.660	.776				
직업정보2	.675	.821	1,659	10.371	55.497	55.497
직업정보3	.537	.502				
직업정보4	.674	.647				
직업정보5	.592	.602				
직업정보6	.553	.596				
문제해결1	.751	.862	1,154	7.214	62.711	62.711
문제해결2	.823	.899				
문제해결3	.567	.581				

1. 다중회귀분석

무용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단계 선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F=38.980(p<.05)$ 으로 본 회귀모형이 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804)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통제성($p=.001$), 사회성($p=.000$)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성($p=.462$)은 기각되었다. 다음<표 7>과 같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자아탄력성 ⇨ 정보수집행동)

변수	B	S.E	β	t	p
상수	1.085	.241	-	4.500***	.000
통제성	.173	.052	.165	3.33**	.001
긍정성	.042	.057	.040	.735	.462
사회성	.435	.068	.368	6.374***	.000

* $p < .05$, ** $p < .01$, *** $p < .001$ / F : 38.980 / 더빈왓슨 : 1.804

다음은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도구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F=13.794(p<.05)$ 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811)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통제성($p=.005$), 사회성($p=.000$)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도구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성($p=.074$)은 기각되었다.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다중회귀분석 결과(자아탄력성 ⇨ 도구준비행동)

변수	B	S.E	β	t	p
상수	1.442	.315	-	4.575***	.000
통제성	.191	.068	.151	2.820**	.005
긍정성	-.134	.075	-.107	-1.795	.074
사회성	.384	.089	.270	4.298***	.000

* $p < .05$, ** $p < .01$, *** $p < .001$ / F : 13.794 / 더빈왓슨 : 1.811

다음은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목표달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F=17.543($p < .05$)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 수 있는 더빈왓슨은 기준치인 2.0 값에 가깝게 나타나(1.923) 변수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사회성($p = .000$)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목표달성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성($p = .054$), 긍정성($p = .672$)은 기각되었다.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다중회귀분석 결과(자아탄력성 ⇨ 목표달성행동)

변수	B	S.E	β	t	p
상수	1.315	.298	-	4.417***	.000
통제성	.123	.064	.102	1.931	.054
긍정성	-.030	.071	-.025	-.424	.672
사회성	.420	.084	.308	4.977***	.000

* $p < .05$, ** $p < .01$, *** $p < .001$ / F : 17.543 / 더빈왓슨 : 1.923

2. 매개회귀분석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Baron, R. M. & Kenny, D. A.(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자아탄력성(통제성)의 경우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으며($p = .000$) 2단계에서 자아탄력성(통제성)이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0$). 3단계에서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목표선택)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영향력이 유의했으며 독립변인(통제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여($\beta = .329 \rightarrow .164$)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460 \rightarrow .280$)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2 \rightarrow .146$). 또한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71 \rightarrow .171$)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6 \rightarrow .141$). 다음<표 10>과 같다.

표 10. 매개회귀분석 결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목표선택)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 ²	매개효과	
통제성	단계1	.165	4.298***	.000	.469	부분 매개	
	단계2	.329	6.802***	.000	.106		
	단계3(독립)	.164	3.373***	.001	.246		
단계3(매개)	.407	8.349***	.000				
사회성	단계1	.289	5.724***	.000	.469		부분 매개
	단계2	.460	10.107***	.000	.211		
	단계3(독립)	.280	5.252***	.000	.276		
단계3(매개)	.312	5.844***	.000				
통제성	단계1	.165	4.298***	.000	.469	부분 매개	
	단계2	.232	4.657***	.000	.054		
	단계3(독립)	.146	2.724**	.007	.092		
단계3(매개)	.213	3.984***	.000				
사회성	단계1	.289	5.724***	.000	.469		부분 매개
	단계2	.271	5.494***	.000	.073		
	단계3(독립)	.171	2.860**	.004	.094		
단계3(매개)	.174	2.911**	.004				
통제성	단계1	.165	4.298***	.000	.469	완전 매개	
	단계2	.223	4.457***	.000	.050		
	단계3(독립)	.063	1.231*	.219	.180		
단계3(매개)	.395	7.774***	.000				
사회성	단계1	.289	5.724***	.000	.469		부분 매개
	단계2	.336	6.970***	.000	.113		
	단계3(독립)	.141	2.498*	.013	.190		
단계3(매개)	.339	6.007***	.000				

* $p < .05$, ** $p < .01$, *** $p < .001$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9 \rightarrow .181$) 또한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60 \rightarrow .266$).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32 \rightarrow .123$)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 또한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매개회귀분석 결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직업정보)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2	매개효과
통제성 직업정보 정보수집행동	단계1	.120	2.732**	.007	.319	부분 매개
	단계2	.329	6.802***	.000	.108	
	단계3(독립)	.181	3.913***	.000	.282	
	단계3(매개)	.442	9.575***	.000		
사회성 직업정보 정보수집행동	단계1	.430	7.409***	.000	.319	부분 매개
	단계2	.460	10.107***	.000	.211	
	단계3(독립)	.266	5.238***	.000	.303	
	단계3(매개)	.359	7.065***	.000		
통제성 직업정보 도구준비행동	단계1	.120	2.732**	.007	.319	부분 매개
	단계2	.232	4.657***	.000	.054	
	단계3(독립)	.123	2.452*	.015	.147	
	단계3(매개)	.324	6.434***	.000		
사회성 직업정보 도구준비행동	단계1	.430	7.409***	.000	.319	부분 매개
	단계2	.271	5.494***	.000	.073	
	단계3(독립)	.105	1.853*	.065	.141	
	단계3(매개)	.309	5.471***	.000		
통제성 직업정보 목표달성행동	단계1	.120	2.732**	.007	.319	완전 매개
	단계2	.223	4.457***	.000	.050	
	단계3(독립)	.066	1.386*	.167	.243	
	단계3(매개)	.467	9.865***	.000		
사회성 직업정보 목표달성행동	단계1	.430	7.409***	.000	.319	완전 매개
	단계2	.336	6.970***	.000	.113	
	단계3(독립)	.102	1.936*	.054	.247	
	단계3(매개)	.434	8.219***	.000		

* $p < .05$, ** $p < .01$, *** $p < .001$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29 \rightarrow .261$)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460 \rightarrow .398$).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232 \rightarrow .194$)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통제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23 \rightarrow .164$), 자아탄력성(사회성)과 진로준비행동(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이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36 \rightarrow .280$).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매개회귀분석 결과(진로결정자기효능감(문제해결)의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 ²	매개효과
통제성 문제해결 정보수집행동	단계1	.145	2.594*	.010	.194	부분 매개
	단계2	.329	6.802***	.000	.108	
	단계3(독립)	.261	5.316***	.000	.161	
	단계3(매개)	.239	4.880***	.000		
사회성 문제해결 정보수집행동	단계1	.379	5.146***	.000	.194	부분 매개
	단계2	.460	10.107***	.000	.211	
	단계3(독립)	.398	8.046***	.000	.230	
	단계3(매개)	.149	3.002**	.003		
통제성 문제해결 도구준비행동	단계1	.145	2.594***	.000	.194	부분 매개
	단계2	.232	4.657***	.000	.054	
	단계3(독립)	.194	3.761***	.000	.070	
	단계3(매개)	.133	2.570*	.011		
사회성 문제해결 도구준비행동	단계1	.379	5.146***	.000	.194	기각
	단계2	.271	5.494***	.000	.073	
	단계3(독립)	.233	4.308***	.000	.080	
	단계3(매개)	.091	1.692*	.092		
통제성 문제해결 목표달성행동	단계1	.379	2.594*	.010	.194	부분 매개
	단계2	.223	4.457	.000	.050	
	단계3(독립)	.164	3.214	.001	.088	
	단계3(매개)	.204	3.990	.000		
사회성 문제해결 목표달성행동	단계1	.379	5.146***	.000	.194	부분 매개
	단계2	.336	6.970***	.000	.113	
	단계3(독립)	.280	5.327***	.000	.128	
	단계3(매개)	.135	2.556*	.011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는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통제성과 사회성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인인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이 목표달성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교육과 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안에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박소희(202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상담심리학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백은경(2016)의 연구와도 일부 같은 결과이다. 더불어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발표한 다양한 연구(김산옥, 2019; 김지연 이기학, 2014; 박효정, 2015; 백은경 정은정, 2017; 신미경, 2016; 오소영, 2018; 오승국, 2015)들로 인해 본 연구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자아탄력성이 적극 활용되어 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를 도구화하여 예술적 표현의 가치를 높이는 무용 분야는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예술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경쟁 구도 선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예컨대 콩쿠르, 오디션, 시험, 공연 등으로 인하여 감정 소모가 극심하게 발생 되고, 심하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회복력을 잃어 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생의 정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된 자아탄력성이 이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 또는 학과 차원에서 자아탄력성 관련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효과성을 추가 검증하여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실제 적용할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이 기각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박효정(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는 박소희(2021)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설문 문항 중 긍정성에 포함되는 역 채점 문항 3문항이 포함되어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각 분야 및 전공의 진로와 직업 선택 폭이 매우 다르고 긍정성의 경우 자칫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질문의 형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결괏값이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이 무용 전공 대학생에게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2.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통제성과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성과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목표선택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성과 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는 목표선택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성과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의 관계, 사회성과 정보수집행동의 관계에서 직업정보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통제성과 목표달성행동의 관계, 사회성과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는 직업정보가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통제성과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관계, 사회성과 정보수집행동, 목표달성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성과 도구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은 2단계까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3단계에서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김지연, 김기학(2014)의 연구, 천혜선(201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진로 발달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한 이유민(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더불어 (신미경, 김희수, 2017; 심정호, 2016; 이혜진, 2014; 정혜인, 2015) 등에 의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속해 발표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생(서보람, 2016), 연극전공 대학생(김은선, 김종표, 이종찬, 2018),

항공서비스 대학생(유정화, 2022), 초등학생(문승태, 이영옥, 임태인, 2019), 여고생(김명희, 최용용, 2014)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연구와 동일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인지된다. 이에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여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국에 대학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무용 전공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첫째, “자아탄력성 관련 후속 연구의 확대이다.” 자아탄력성은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서는 연구 자체가 미비하고 무용 전공자들에게 생소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대입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존재하는 무용연구소 또는 무용학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와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련 교수자 및 전문가와 학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교수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용 분야에서는 소통의 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무용 심리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독려 및 전문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무용 분야에서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관련 연구 자체가 부족하여 사례를 비교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했다. 연구 대상 또한 무용 전공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예술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까지 포함하여 후속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 연구가 무용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원(2019),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규진(2021),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의 임파워먼트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혁신행동의 조절효과”,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9(3)**, 35-50.
- 김남영(201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 최용용(2014),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포부를 매개로-”,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7(1)**, 83-107.
- 김민범(2023), “무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민정(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심리치료 9(1)**, 311-333.
- 김산옥(2019),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 김상호(2013),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내외 통제성,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 김수경(202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연주(2021),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아(2023), “국내외 예술인 지원 사업 현황 연구: 국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프랑스국립무용센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은선, 김종표, 이종찬(2018), “학점은행제 연극전공자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31(1)**, 131-151.

- 김정수(2017), “체육관련 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희망,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연, 이기학(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형균(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묘봉(2021), “댄스스포츠 학생선수의 자기효능감, 운동동기, 운동탈진 및 경쟁불안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문승태, 이영옥, 임태인(2019),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진로동기,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32(3)**, 247-264.
- 박남일(2018),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박소희(2021),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효식(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몰입, 진로동기,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효정(2015), “청년구직자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은경(201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_____, 정은정(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4(9)**, 339-362.
- 서보람(2016),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심정호(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신미경(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의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 _____, 김희수(2017), “대학생의 진로소명의식,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30(4)**, 131-148.
- 염태영(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오소영(2018), “대학생이 지각한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오승국(2015), “중장년 남성 실직자의 진로장벽,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유정화(2022), “항공서비스 전공대학생의 성격5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12(1)**, 75-101.

- 이기순(2016),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이대원(2023), “무용학과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1)**, 115-131.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 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이용일(2013), “부모와의 대상관계가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유민(2014),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은(2006), “직업무용수의 은퇴 후 활로 개척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지혜(2017),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메타인지가 자기주도성, 진로개발능력 및 취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진선(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 이혜민(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 진로소명의 인과적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혜진(2014),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화석(2019),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과학회지 36(3)**, 1-14.
- 임보미(2020), “무용전공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임승연(2019),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취업준비행동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혜림, 정익중(2012), “빈곤과 가족구조 결손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경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37**, 111-142.
- 전예지(2014),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과 대졸자의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혜인(2015), “미용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춘화(2019), “자기효능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중,일의 비교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천혜선(201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편유희(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지현(2013), “무용멘토링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황혜자, 최윤화(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황분환(2015), “무용전공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황혜지(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69-1191.
- Block, J.(195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 of ego-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_____(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 281-295.
- Luthans, F.(1998), *Organisational behaviour 8th Edition*, Irwin McGraw-Hill, Boston.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is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